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

전문공보담당자 박성민

전화 053-570-4390 / 팩스 053-570-4242

## 보도자료

2020. 3. 10.(화)

### 제 목 폐기처분 받은 어린이용 마스크 55,000여개 유통 사범 등 기소

####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1조 제1항)

- 대구서부지청 금융·경제범죄전담부(부장검사 박순배)는 금일(3. 10.)
  - 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폐기처분명령을 받은 KF80 어린이용 마스크를 유통한 사범 3명을 신속히 수사하여 모두 불구속 기소하였고,
  - ②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‘KF94 마스크를 대량 판매한다’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합계 약 8,200만 원을 편취한 사범을 구속 기소하였음
- 향후에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이용한 각종 범죄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음

## 1 폐기명령을 받은 어린이용 마스크 유통 사범 3명 불구속 기소

### 1]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- 피고인
  - A○○(51세, 마스크 제조업체 운영자)
  - B○○(51세, 마스크 도소매 중개업자)
  - C○○(44세, 유통업자)

## ○ 죄명 및 공소사실 요지

- A○○, B○○은 공모하여, '20. 1. 31.경 식약처로부터 폐기명령(위해성 3등급 판정)을 받은 KF80 어린이용 마스크 55,200개를 개당 620원에 유통업자에게 판매 [약사법위반, 3년 이하 징역, 3,000만원 이하 벌금]
  - ※ 마스크 겉감에 동물캐릭터 그림을 인쇄 제조함으로써 '19. 10. 24. 식약처로부터 판매중지, 회수 및 폐기명령을 받음
  - ※ 위해성 3등급은 의약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부작용을 거의 초래하지 아니하나 유효성이 입증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색깔이나 맛의 변질, 포장재의 변형 등이 발생하여 안전성·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 가장 낮은 등급에 해당
- C○○은 '20. 2. 1. ~ 2. 2.까지 위와 같이 폐기명령을 받아 시중에 판매할 수 없는 마스크를 정상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약 8,200만원 편취 [사기]

## ② 수사경과

- '20. 2. 7.           충남지방경찰청 내사 착수
- '20. 2. 21.       홍성지청 기소 의견 송치
- '20. 3. 3.        대구서부지청 이송
- '20. 3. 10.      피고인들 모두 불구속 구공판
  - ※ C○○은 피해 모두 변제하였고, 판매한 마스크 대부분 반품 처리함으로써 국내 유통된 양이 120개 정도인 점 고려하여 불구속 구공판하였음

## ③ 참고사항

- 범행 일체 자백하고, 대부분의 마스크가 최종적으로 중국으로 수출되거나 압수되어 일반 국민에게 유통된 양은 120개 정도에 불과함
-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으로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어린이용 마스크를 유통시킨 점을 고려하여 엄정 처리하였음
  - ※ 압수된 마스크 840개는 식약처로부터 이미 폐기명령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폐기처분함

## 2

###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마스크 판매대금 편취 사범 1명 구속 기소

#### ①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##### ○ 피고인

- D○○(25세, 무직)

##### ○ 공소사실 요지 및 죄명

- '20. 2. 11. 네이버 카페에 'KF94 마스크 2만개를 3,200만원에 판매하겠다'는 등의 허위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 12명으로부터 마스크 판매대금 8,200여만원을 편취[사기]

- 그 외에도 피해자 33명으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3,200여만원 편취[사기]

#### ② 수사경과

○ '20. 1. 7. ~ 2. 12. 피해자들 경찰에 진정 및 고소장 접수

○ '20. 3. 6. 대구성서경찰서, 당청에 구속 송치

○ '20. 3. 10. 구속 기소

## 3

### 향후 계획

○ 향후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음